



내과학회, '통합·교육·미래' 키워드 제시

WCIM2014 개최 기점으로 학회 통합과 발전 모색



대한내과학회가 학회 및 내과연관 의료 발전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통합·교육·미래’를 제시하며 세계학회 개최를 기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실행에 옮겼다.

내과학회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의료계 환경과 수가체계에서의 불이익 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내과 기피현상, 학회 세분화 등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난 10월 24일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제32차 세계내과학회 학술대회(WCIM2014) 개최 기념 간담회에서 이수곤 세계내과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이번 대회는 내과 산하 학회 및 개원의를 포함한 13개 분과가 모여 함께 치르는 세계 학술대회로 모두 힘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그동안 학회가 갈라지면서 의학수준도 높아지고 전문 진료도 가능해 지는 등 장점도 많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학회의 역량이 분산되고 젊은 내과 의사 지원자들은 동요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미국, 호주 등의 내과학회와 이 문제를 토론할 계획이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 내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동기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는 “학회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로 구성된 만큼, 니즈도 다양해 그에 맞도록 학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모든 학회들이 세분화, 전문화를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내과학회도 이를 어떻게 다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기 총무이사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보협정책을 정부와 함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가져가느냐에 있다”면서 “자원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내과학회는 복지부나 병협 등 정책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



▲이수곤 세계내과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대한내과학회 이사장).

조를 통해 가장 좋은 안들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과는 모든 임상의학의 기초이자 발판이 되는 학문으로 학회는 보건의료의 선봉에 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 내과학의 학문수준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올해 1월 내과학회 학술지가 SCI에 등재됐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세계학회의 성공적 개최로 내과학의 세계화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세계학회가 단순한 국제회의로 일과성으로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환점으로 해서 대한내과학회가 대한 의료선봉에서 제대로 된 의료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일보한 교육이 내과를 살린다

내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 핵심 키워드로 꼽은 교육에 상당한 무게감을 두고 있다. 이문규 사무



환자 커버가 문제도 발생해 국가 시행 명령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제시한 키워드 ‘미래’와 관련해서는 “미래의학, 의학 교육, 내과 의사, 내과학회 모두가 발전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 타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들 경험을 배우기 위한 소통과 현재 내과학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내외국인 6000여명 참석 ‘대형 학회’ 위상

이번 WCIM2014는 플래너틱 강연만 3개 주제 11명의 연자가 참여했다. 특별강연 역시 5개 주제로 세계적 석학 10명이 연단에 섰다. 심포지엄은 산하학회와 공조해 22개

주제를 두고 87명의 강연이 진행됐다. 세계학회 답게 구연 논문 수도 154개에 이르고, 포스터 논문 역시 규모가 큰 만큼 포스터 및 구연의 수도 725개에 달했다.

이동기 총무이사는 “내과학회의 가장 큰 결집들은 정부에서 의료를 시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펀드타든지 인적자원을 한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수련의들의 의료환경이 변해 근무시간은 줄어들면서 업무과다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대학병원, 준 종합병원에서도 의료현장에서 커버하고 응급환자, 중환자라든지

주제를 두고 87명의 강연이 진행됐다. 세계학회 답게 구연 논문 수도 154개에 이르고, 포스터 논문 역시 규모가 큰 만큼 포스터 및 구연의 수도 725개에 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13개 분과학회가 하나로 뭉쳐 준비한 최초 학술대회로 대한감염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혈액학회, 한국임상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개원내과 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등이 참여했다.

‘우리 내과 하나되어 세계로’가 슬로건인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 유럽을 포함한 70여 개국에서 6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문윤희 기자/MP저널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 Metabolism

Date
16-18 October 2014

Venue
KINTEX Exhibition Center II,
Gyeonggi-do, Korea

‘2014 국제당뇨병학술대회’ 성료

최신 연구 결과 및 트렌드 등 광범위 리뷰 진행

에서의 당뇨병 치료 등에 대한 최신 연구들도 리뷰됐다.

특히 이번 ICDM에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보험 법제 차원에서 살펴보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션도 마련돼 당뇨병 치료 및 연구와 함께 환자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학회의 적극적인 노력도 반영됐다. 여기에서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 소모품’, ‘행위(검사)’, 당뇨병 치료제 등의 보험급여화와 요양급여지원 및 보장성 확대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대한당뇨병학회 이기업 이사장은 “당뇨병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서 기본적인 치료는 물론 예방과 진단, 질환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전반에 걸친 효과적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이다”며 “앞으로도 대한당뇨병학회는 이번 ICDM과 같은 대규모 학술 대회를 통한 질환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감은 물론 국민들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을 개선시키고 보다 실질적인 환자 치료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 2013년 발표했던 ‘한국인 당뇨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중 12.4%가 당뇨병 환자이며, 19.3%가 잠재적인 당뇨병 단계인 공복혈당장애로, 국민 3명 중 약 1명이 고혈당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당뇨병 환자 유병률과 함께 오는 2050년에는 현재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당뇨병학회(회장 최문기/이사장 이기업)가 2014년 국제당뇨병학술대회(ICD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abetes and Metabolism)를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연례 추계학술대회를 겸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ICDM은 매해 세계 20여 개국 1500명 이상의 당뇨병과 내분비내과 관련 연구자들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학술 대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번 ICDM에서는 노화와 관련한 대사변화가 집중적으로 리뷰됐고 심혈관질환을 포함하는 혈관 합병증에서 최신의 치료 타겟, 대사와 염증 반응의 연관성, 영양과 염증 반응의 연관성, 인슐린 감수성 및 비만에 관련된 새로운 물질 등과 관련한 최신 지견을 다루는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또한 24시간 주기 리듬(circadian rhythm)과 대사(metabolism)간 밀접한 관계를 후성유전학(epigenetics)과 연관 지어 연구한 결과도 다뤄졌다.

임상 심포지엄에서는 최신 신약 및 개발 중인 당뇨병 신약에 대한 리뷰, 환자 교육에서의 동기부여, 당뇨병과 치매의 관련성, 특별한 상황